

방어적 언어 척도 개발 연구*

곽재석[†] 권선중 김예나

한국침례신학대학교 상담심리학과

본 연구는 외부의 위협적 정보로부터 자기개념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는 자기-기만적 말하기를 포착할 수 있는 방어적 언어 척도(Defensive Verbal Scale; DVS)를 개발하고, 개발된 척도의 심리측정적 속성을 검토하였다. 먼저 방어적 언어를 조작적으로 정의한 뒤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자기개념에 위협적일 수 있는 상황인 (1) 분노나 고통스러운 경험이 떠오르는 상황, (2) 신념이나 양심에 벗어나는 일을 해야 하는 상황, (3) 기대했던 결과를 얻지 못한 상황, (4) 반복된 실수나 잘못에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 상황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상황별로 DVS의 예비문항을 제작하였으며, 만14~24세 106명(남 53, 여 53)을 대상으로 예비 DVS의 심리측정적 속성을 검토하였다. 분석 결과, 예비 DVS의 요인구조는 단일차원으로 도출됐으며 내적 일치도는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수렴 및 변별타당도에 근거해 유의하지 않은 상황과 문항이 삭제되고, 자기개념의 위협이 보편적이면서 스트레스로 인한 생리학적 변화와 관련된 분노나 고통스러운 경험이 떠오르는 상황, 반복된 실수나 잘못에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 상황과 이에 따른 각 5개 문항이 최종 선정되었다. 확정된 DVS의 심리측정적 속성을 검토하고자 두 차례에 걸친 본조사를 통해 주성분분석, 문항분석, 내적합치도, 검사-재검사 신뢰도, 수렴 및 변별타당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DVS는 단일차원이면서 안정적인 신뢰도를 나타냈고, 대인민감성, 낮은 조절력, 부정정서, 합리화와는 유의한 정적상관, 긍정정서와 마음챙김과는 유의한 부적상관으로 나타나 수렴 및 변별타당도를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의 의의와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 등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 방어적 언어, 방어기제, 자기개념, 자기기만, 척도개발

* 본 논문은 2017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 지원으로(NRF-2017S1A5A2A03068718) 수행된 연구이며, 건양사이버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승인을 받아 진행됨(KYU-2018-019-01).

† 교신저자: 곽재석, 한국침례신학대학교 일반대학원 상담심리학과 박사과정, (34098) 대전광역시 유성구 북유성대로 190(하기동), Tel: 042-828-3300, E-mail: jaeseok3979@naver.com

Shapiro(1989)에 따르면 말하기(speech)는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동기화된 행동이자 개인의 동기 상태에 대한 단서를 제공한다. 또한 타인과 소통은 물론 자기 신념을 확인하거나 강화하며, 감정을 분류한다. 그러나 말하기가 대상과의 소통이 아닌 자신에게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일 때, 방어기제가 활성화된다고 보았다. 이때 말하기의 목적은 대상과(with)의 소통이 아니라 대상에(at) 말하기 위한 수단이 되고, 말하기는 실제 생각이나 느낌이 아닌 다른 것을 생각하고 느끼도록 세팅된다. 즉, 자기(self)를 보호하거나 방어하기 위해 자신이 무엇을 어떻게 말하는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게 만들고, 자기를 위협하는 생각과 감정을 왜곡하거나 기만하게 된다(Barrett, Cleveland, Conner, & Williams, 2000).

이러한 말하기의 배경에는 위협적 정보로부터 자기개념을 보호하고 방어하려는 복잡한 심리적 과정이 깔려 있다. 자기개념은 동화와 조절을 통해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조직으로써 점차 내적으로 일관되며 다양하고 넓은 자기개념을 구성하고(Epstein, 1973), 자기와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조직 및 해석하면서 응집력을 형성한다(Kihlstrom & Cantor, 1984; Markus, 1977). 그러나 만일 자기개념에 갈등이나 모순된 정보가 의식에 들어오면 이를 위협으로 인식해 불안이나 우울, 불쾌감, 낮은 자존감 등의 부정적 영향을 증가시키는데(Lee, Kim, & Shin, 2003; Bentall, Kinderman, & Kaney, 1994; Higgins, 1987; Rogers, 1957), 그 방편으로 우리는 종종 경험을 왜곡하거나 자기개념과 일치된 형태로 의식을 제한하여 부정적 영향을 감소시킨다(Kernberg, 1967; Rogers, 1951).

이와 유사한 과정인 방어기제는 무의식적 기제로서 선천적이고 비자발적인 조절과정으

로(Vaillant, 1971). 의식에 들어온 위협적 정보를 덜 위협적으로 변환시키는 인지적 전략이자(Barrett, Williams, & Fong, 2002), 부정적 영향을 처리해 심리적 균형을 유지한다(Hong & Ha, 2020). 문제는 방어가 의식 밖에서 일어나는 과정이고, 성공적인 방어기제의 사용은 적응적이고 통합된 자기감각을 만들 수 있고(Barrett et al., 2002), 심리사회적 적응을 돕는 단 점에서(Brenner, 1981; Hart & Chmiel, 1992; Kim, 2003; Vaillant, 1971; Yoon, Ahn, & Park, 2008) 신뢰롭고 타당한 측정을 어렵게 만든다.

경험적으로 방어를 포착하는 데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Barrett 등(2002)은 자기-기만적 말하기 행동(self deceptive speech acts; Shapiro, 1989)에서 착안하여 방어적 언어 행동(이하 DVB)을 조작적으로 정의하고, 그에 기반하여 방어적 언어 행동 평가(Defensive Verbal Behavior Assessment; DVBA)를 개발한 바 있다. Barrett 등(2002)은 DVB를 ‘위협적 정보로부터 자기개념을 보호하기 위한 행동’이라 명명하고, DVBA 면접질문지 개발을 통해 말의 구조와 내용에서 자기-보호적 인지 전략의 실체를 포착하려 했다. 또한, DVB에 대해 개념적으로 인식(awareness)과 왜곡(distortion)이란 두 차원의 상호작용이 방어적 기능의 중요한 측면을 만든다고 보았는데, 인식은 자기(self)를 위협하는 인지·정서·행동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하며, 왜곡은 자기개념을 유지하고 자존감을 보호하기 위해 위협적 정보를 부인하거나 회피 또는 수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DVBA와 관련한 선행연구를 보면, Kernis, Lakey와 Heppner(2008)는 방어적 언어를 사용하여 위협적 정보를 합리화하거나 왜곡하는 이유를 탐구한 결과, 안정적이고 내재된 자존감과 일치된 개인보다 불안정하고 불일치된 개

인이 언어적 방어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Lakey, Kernis, Heppner와 Lance(2008)의 연구에서는 진정성과 마음챙김 수준에 따른 언어적 방어성을 예측한 결과, 진정성과 마음챙김이 높을수록 자신과 관련된 부정적 정보에 덜 방어적이면서 솔직하게 대할 가능성이 높았다. 그리고 Yen(2013)의 연구에서는 방어적 언어를 사용할 때 전기피부반응과 심박수의 변화가 생리적 각성을 더 높게 예측했고, 진정성 있는 행동일수록 더 낮은 심혈관 반응을 보였다. 또 자기개념의 위협이란 관점에서 자기조절력이 낮은 개인이 부정적 피드백에 더 방어적으로 반응했다는 점과(Ruttan & Nordgren, 2016) 대인민감성과 편집증 사고를 예측하는 변수로써 자신의 위협을 타인에게 투사하는 방어가 높은 개인이 타인의 행동을 더 민감하게 지각하고 왜곡할 가능성이 컸다는 연구(Watson, 2002)들로 볼 때 DVBA가 자기조절과 대인관계 영역의 문제를 설명하는 변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DVBA와 이를 측정하는 DVBA의 문제는 DVBA를 인식과 왜곡이 상호작용한 결과로 볼 것인지 또는 DVBA로 인해 인식을 저해하고 왜곡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인지가 모호하다. 방어기제가 해리와 인지적 왜곡의 스펙트럼으로 구성된다는 Bowins(2004)의 설명은 DVBA의 구조적 타당성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방어 수준에 따른 기능성을 탐구한 연구(Di Giuseppe et al., 2018)는 적응적 방어기제가 느낌이나 생각, 결과에 대해 의식적인 인식을 가능케 하지만, 억제적 방어기제는 생각, 느낌, 소망, 기억, 두려움의 잠재적 위협을 인식하지 못하게 하고, 심상-왜곡 방어기제는 자아나 신체, 타인상을 왜곡하여 자존감을 조절한다고 했다. 다양한 방어기제 중에서도 일부 방어기제가 다른 기제보다 의식적

경험을 왜곡시킨다는 주장(Haan, 1977; Vaillant, 1977)에 비추어 볼 때, 방어기제가 정보를 왜곡하는 결과를 만드는 것도 타당하다.

만약 두 관점이 모두 타당하다면, 위협을 지각할 때 방어기제로 인해 인식이 저해되면서 정보를 왜곡하는 결과를 만들게 되고, 이는 다시 무의식적 과정에서 인식에 영향을 미쳐 더 방어하게 되는 결과일 수 있다. 이처럼 방어기제의 과정과 결과가 혼재된 문제는 방어기제의 이론적 구조와 현상을 파악하려는 연구에서 고질적인 문제이다. 이에 Mihalits와 Codenotti(2020)는 서로 다른 이론적 모델에서 출발한 방어기제의 개념과 경험적 증거를 제대로 구분해야 한다는 지적(Sjoberg, 1973)에도 불구하고 진전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원인으로 꼽았는데, 앞으로는 방어기제의 일반 법칙을 찾거나 가설검증을 목표하기보다 방어기제 모델이 특정 현상을 잘 설명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데이터를 얻어야 함을 강조했다.

DVBA의 문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측정의 모호성이다. 인터뷰를 통해 말과 행동에서 위협적 정보를 얼마나 인식했고 왜곡했는지 평가하는 DVBA는 오히려 알아차림과 비판단을 핵심으로 하는 마음챙김 척도와 개념적으로 유사할뿐더러 DVBA를 포착하기보다 인식과 왜곡의 정도를 포착하는 게 목적이 돼버린다. 둘째, 모델의 불명확성이다. DVBA의 모델이 방어의 과정과 방어로 인한 결과를 혼재된 형태로 설정해 평가자가 이 둘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평가하기가 어렵다. 이는 방어를 평가할 때 평가자가 혼입 변인의 영향을 의식하지 않은 채로 평가한다는 점에서 방어의 신뢰롭고 타당한 평가를 어렵게 만든다.

한편, DVBA 외에도 방어기제의 유형을 측정하는 한국판 방어유형 질문지(Cho, 1999)나

방어기제의 성숙도를 측정하는 이화방어기제 (Rhee, Kim, Kim & Park, 1991) 척도가 있다. 하지만 방어기제를 유형이나 성숙도로 구분하는 것은 자아의 복합적인 작동 방식을 지나치게 단순화시킬 위험이 있어(Brenner, 1981), 방어로 인한 반응을 이해하는 것이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는 데 중요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Shapiro(1989)와 Barrett 등(2002)의 아이디어에 착안하여, 방어기제로 인해 나타난 징후로서 방어적 언어 행동이 인식을 방해하고 왜곡을 초래하는 것으로 모델을 설정했다. 또한 청소년과 성인 모두가 자기개념의 위협으로 인식될 만한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방어적 언어를 측정하고자 했으며, 도구가 포착하려는 바를 분명히 하기 위해 행동 단위 중 방어적인 말하기에 초점을 맞춰 이를 측정할 수 있는 자기보고식 도구인 방어적 언어 척도(Defensive Verbal Scale; DVS)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방 법

방어적 언어의 조작적 정의

본 연구는 자기개념에 위협적인 사고나 감정을 방어하기 위해 실제 생각이나 느낌과는 다른 것을 생각하고 느끼게 하는 자기-기만적 말하기에 초점을 맞췄다(Shapiro, 1989; Barrett et al., 2002). 따라서 이를 방어적 언어(Defensive Verbal)라 명명하고 ‘위협적 정보로부터 자기개념을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해 알아차림을 방해하거나 왜곡을 일으키는 자기-진술적 형태의 자기-기만적 말하기’라고 조작적으로 정의하였다. 더불어 방어적 언어의 사용

정도가 심할수록 인식을 방해하거나 정보를 왜곡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보았다.

연구참여자

예비조사를 위해 국내 온라인 조사업체 M사에 의뢰해 2020년 9월 11일부터 9월 13일까지 7일간 만14~24세 106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예비조사에서 확정된 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토하기 위해 두 차례에 걸쳐 본조사를 진행했고, 자료수집은 예비조사와 마찬가지로 국내 온라인 패널 조사업체를 통해 수집했다. 1차 본조사는 2020년 9월 14일부터 9월 17일까지 만14~24세 294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2차 본조사는 추가적인 수렴타당도 확인과 검사-재검사를 목적으로 1차 참여자 중 2차 본조사에 응답한 123명의 자료를 활용했다. 자료수집은 2020년 10월 21일부터 27일까지 만14~24세 123명을 대상으로 수집됐다. 구체적인 내용은 표 1과 같다.

측정 도구

방어적 언어 척도

방어적 언어 척도(Defensive Verbal Scale; DVS)는 Shapiro(1989)와 Barrett 등(2000, 2002)의 아이디어에 착안하여 방어적 언어 수준을 자기보고식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만든 척도이다. 자기개념에 위협적인 정보가 의식으로 들어오면, 자기개념을 보호하기 위해 방어적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자기개념에 일치된 형태로 인식을 방해하고 왜곡해 부정적 영향을 처리하게 된다. DVS는 그러한 말하기를 통해 본래 생각이나 느낌이 아닌 다른 생각과 느낌을 경

표 1. 연구참여자 인구통계학적 특성

구분	예비조사		1차 본조사		2차 본조사		
	n	비율(%)	n	비율(%)	n	비율(%)	
age	만14~24세						
성별	남	53	50.0	141	48.0	57	46.3
	여	53	50.0	153	52.0	66	53.7
	total	106	100.0	294	100	123	100.0
학력	중학교 재학	14	13.2	49	16.7	16	13.0
	고등학교 재학	40	37.7	93	34.6	38	30.9
	학교밖 청소년	1	0.9	3	1.0	1	0.8
	대학 재학	41	38.7	120	40.8	60	48.8
	대학 미진학	10	9.4	29	9.9	8	6.5
	total	106	100.0	294	100.0	123	100.0

험하게 하는 자기-기만적 말하기를 평가한다. 응답은 스트레스 및 자기개념에 위협적인 두 가지 상황에서 진술문 형태의 문항을 보고, 스스로에게 그런 말을 얼마나 자주 하는지 평가한다. Likert 4점 척도(0=아니다, 1=가끔 그렇다, 2=자주 그렇다, 3=항상 그렇다)로 총 10개 문항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방어적 언어의 사용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신뢰도(Cronbach's α)는 .866으로 나타났다.

간이정신진단검사

간이정신진단검사는 Derogatis(1977)에 의해 개발된 SCL-90R을 Kim 등(1984)이 한국판으로 재표준화한 뒤 Kwon(2015)이 한국의 사회문화적 특성과 정신건강 환경을 고려하여 개발한 척도(Korean Symptom Check List 95; K-SCL95)이다. 본 척도는 타당도 영역을 비롯하여 정서 장애, 현실적응장애, 기타 영역인 17개 증상을 평가하는 도구로 지난 7일간 생활하면서 경험한 증상의 정도를 Likert 4점 척도(0=아니다~3=거의 항상 그렇다)로 평정한다. 본 연구

에서는 대인 민감성(5문항)과 낮은 자기조절력(5문항) 척도를 선별해 사용했으며, 신뢰도는 .837, .850 순으로 나타났다.

단축형 행복척도

Suh와 Koo(2011)에 의해 개발된 단축형 행복 척도(Concise Measure of Subjective Well-Being; COMOSWB)는 주관적 안녕감의 핵심 요소인 삶의 만족, 긍정적 정서, 부정적 정서를 측정하는 도구이다. 본 연구에서는 삶의 만족을 제외한 긍정 및 부정적 정서를 평정하고자 형용사 형태의 문항을 번안해(즐겁다/행복하다/편안하다/기분이 나쁘다/짜증난다/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든다) 사용했고, Likert 7점(0=전혀 그렇지 않다~6=매우 그렇다)으로 구성하였다. 신뢰도는 긍정정서 .937, 부정정서 .827로 나타났다.

이화방어기제

Rhee, Kim, Kim과 Park(1991)이 개발한 이화방어기제(Ewha Mechanisms Test; EDMT)는 전래

속담을 기초로 문항을 구성하여 한국인의 의식과 적응 및 방어행동을 평가한다. 20가지 방어기제는 4요인(약한 통제력과 민감한 불안정 방어/자아확대적/자기부정/현실직면 회피)로 구성되며 10문항씩 총 200문항이다. 현실 직면 회피방식 중 합리화는 현실을 직면하지 않고 왜곡하는 것으로 그로 인한 불안과 갈등을 피할 수 있도록 하여 상당한 심리적 안정을 가져다주는 방어기제다(Rhee et al., 1991). 본 연구에서는 합리화 10문항을 DVS와 개념적으로 독립적인지 확인하고자 사용했으며, Likert 5점(1=전혀 그렇지 않다~5=아주 그렇다)으로 평정되었다. 신뢰도는 원논문과 동일하게 .790로 나타났다.

한국판 5요인 마음챙김 단축형 척도

한국판 5요인 마음챙김 단축형 척도(Korean Version of Five Facet Mindfulness Questionnaire Short Form; K-FFMQ)는 Baer, Smith와 Allen 등(2004)이 개발한 5요인 마음챙김 질문지를 Won과 Kim(2006)이 한국판으로 타당화한 뒤 Cheong, Chae, Lyu와 Kang(2017)이 단축형으로 만든 것이다. 5요인별(자각행위/비판단성/관찰/비자동성/기술) 3문항씩 15문항이며, Likert 7점 척도(0=전혀 그렇지 않다~6=매우 그렇다)로 평정된다. 원논문에서 신뢰도는 .755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770이었다.

연구절차 및 분석방법

문항 개발 및 내용타당도 검토

문항 개발 및 내용타당도 검토는 공인된 심리검사 및 다수의 검사 개발 경험이 있는 응용심리전공 교수 1인과 상담 및 임상 심리전공 박사 1인, 상담 및 임상 심리전공 석사 1

인이 실시하였다.

먼저 문항 개발을 위해 DVBA 매뉴얼(Barrett, 2000)과 자기-기만적 말하기 단서(Shapiro, 1989), 이화방어기제(Rhee et al., 1991)의 회피, 합리화, 부정의 문항을 토대로 40개 예비문항을 구성하였다. 예비문항은 DVBA에서 제시한 방어적 언어 행동의 평가 기준 및 인터뷰 질문을 진술문 형태로 수정하여 예비문항을 구성하였다(예: (1) 긍정적 시각으로 자신을 묘사하는 경향으로, 어떤 취약점이나 실패를 축소함→내 선택이 옳아라고 말한다. (2) 내가 거짓말을 했을 때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다→내가 그러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라고 말한다). 한편, 방어가 의식 밖에서 작동하기 때문에 방어를 자기보고식으로 측정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으나, 응답자가 방어의 목적이란 사실을 인식하는지와 관계없이 방어적 행동의 사용을 보고하는 방법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Cramer, 1998). 즉 진술문 형태의 문항은 관찰 가능한 행동 단위이므로 수검자가 자신에게 영향을 주기 위한 방어적 언어의 사용 빈도나 정도를 의식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기억편향이나 인지적 왜곡이 개인의 특질보다는 삽화나 상태에 특정적이란 연구 결과로(Lee et al., 2003; Bentall, Kaney, & Bowen-Jones, 1995), 특정 상황을 제시해 응답하도록 설계했다. 자기개념의 위협적인 상황을 구성하기 위해 DVBA의 네 가지 질문영역인 도덕적 위반(과제나 시험에서 비도덕적으로 했던 때), 공격성(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하려고 고의로 무언가를 했을 때), 성생활(현재 성생활에 만족하는지), 부정적 자기상(마음에 들지 않은 신체부위)과 스트레스로 인한 생리학적 증거와 관련된 핵심 심리적 요소인

통제 불가능성과 사회적 평가위협을 참고하였다(Dickerson & Kemeny, 2004). DVBA의 질문영역 중 성생활과 공격성은 한국의 문화 특성상 방어나 긍정 왜곡의 위험이 있어 삭제하였으며, 최종적으로 (1) 외상 및 트라우마: 분노나 고통스러운 경험이 떠오를 때, (2) 도덕적 위반: 신념이나 양심에 벗어나는 일을 해야 할 때, (3) 성취 좌절 경험: 기대했던 결과를 얻지 못했을 때, (4) 사회적 평가: 반복된 실수나 잘못에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을 때로 상황이 구성되었다.

그다음, 네 가지 상황 영역별로 예비문항을 10개씩 배치해 상황에 알맞은 형태로 문항을 재수정하였다(예: (1) 내가 그러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라고 말한다→내가 이러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서 그런거야라고 말한다, (2) 말을 말자라고 말한다→말해봐야 내 입만 아프지라고 말한다). 예비문항 확정 후, 문항 난이도와 가독성을 확인하고자 초등학교 고학년 4명, 성인 11명을 대상으로 문항의 이해 여부와 상황별 문항에 응답하기 어렵지 않았는지 등의 의견을 취합하였다. 그 결과 문항 난이도나 이해는 적절했으나 ‘말을 말자라고 말한다’와 ‘말해봐야 내 입만 아프지라고 말한다’, ‘뭐 문제 있겠어?’라고 말한다’와 ‘별일 있겠어?’라고 말한다’가 같은 문항으로 이해된다는 의견이 있어 더 친숙하고 이해도가 높은 문항을 남겨 네 가지 상황별로 5개 문항씩 총 20개 문항을 확정하였다.

예비조사

문항 선정을 위해 예비조사에 참여한 106명을 대상으로 분석을 시행하였다. 자료의 적절성을 파악하고자 기술통계를 실시 후 주성분 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 PCA)으로 요인

구조를 검토하고, 신뢰도 분석(Cronbach's α)을 시행하였다.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문항-전체 간 상관인 .30 이하거나 문항 제거 시 신뢰도가 증가하는 문항, 그리고 요인부하량이 .40 이하로 낮은 문항들을 추려낸 뒤 연구자 간 합의를 통해 최종 문항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문항은 다시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검토하였다.

본조사

1차 본조사에서는 294명을 대상으로 DVS와 다른 척도 간 상관분석을 통해 수렴타당도(convergent validity)를 검증하였다. 사용한 척도는 간이정신진단검사(K-SCL95)의 스트레스 취약성인 대인 민감성, 낮은 자기조절력과 단축형 행복척도(COMOSWB)의 긍정 및 부정적 정서를 활용해 DVS와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다음 5주 간격을 두고 2차로 실시된 본조사에서는 1차 본조사 참여자 중 123명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수렴 및 변별타당도, 검사-재검사 신뢰도(test-retest reliability)를 검증하였다. 척도는 5요인 마음챙김 단축형 척도(K-FFMQ)와 이화방어기제(EDMT)의 합리화를 사용했으며,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DVS의 총점 간 상관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방법

문항 개발과 심리측정적 속성을 검증하기 위한 모든 분석은 SPSS 22.0을 사용하였다. 참고로 요인분석은 주축요인분해법(principal axis factoring; PAF)이 아닌 주성분분석(PCA)을 사용했다. 방어적 언어는 심리적 변인이기보다 자기개념을 보호하기 위해 방어적 기능이 작동되어 외현적 징후로써 나타난 행동이다. 때문에, 이미 방어의 작용으로 나타난 행동이 또

다시 어떠한 잠재변인이 존재하거나 설명된다 는 접근은 적절하지 않다. 또 방어의 과정을 포착하려면 맥락이나 상황에 특정적이기 때문에 DVs에 제시된 상황은 누구나 보편적이면서 생리학적 증거와 관련된 상황을 제시한 것이므로 상황이 공통요인이나 분모로 가정될 수 없다. 즉, 각 문항은 방어적 언어로 설명되는 것이지 상황에 의해 설명되는 게 아니므로 상황은 현상을 포착하려는 방편일 뿐 공분산 패턴을 보인다고 하더라도 이를 상황에 의해 해석하는 건 부적절하다. Jahng(2015)의 설명처럼 스트레스 생활사건 같이 측정 대상이 문항 점수 상관을 나타내는 공통요인이 아닐 땐 주 성분분석을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PCA가 구 성타당도 측면에서 측정된 변수의 전체분산을 최대한 설명해주는 방법이므로(Seo, Lee, Kim, & Kim, 2018) 심리적 변인으로써 요인구조의 정확성을 탐색하는 방법이 아닌 방어적 언어 라는 주성분으로 문항(변수)들이 군집성을 이루는지에 초점을 두었다(Kang, 2013).

결 과

DVS 문항 선정 결과

문항 선정을 위한 문항 분석 및 신뢰도 분석 결과, 평균($M=0.58\sim 1.20$)과 표준편차($SD=.76\sim .93$)에서 극단값은 없었고, 왜도(.046~1.286)와 첨도(-.898~1.219) 또한 정규분포를 이루고 있었다. 문항-전체 상관은 .484~.732로 .30 이하인 문항은 없으며, 전체 신뢰도는 .925로 문항 제거 시 신뢰도가 상승하는 문항은 없었다(표 2).

그다음 표집 적절성 지수인 KMO와 Bartlett

구형성 검정 결과, KMO 값이 .892로 .80 이상 이었고, Bartlett 값은 $\chi^2 = 1208.255(P < .001)$ 로 나타나 표본이 요인분석을 하는 데 적합했다. 요인추출은 주 성분분석(PCA)으로 요인 수를 가정하지 않고 추출했고, 요인회전은 문항 간 상관을 가정하므로 사각회전인 직접 오블리민(Direct Oblimin)을 사용하였다. 요인 수 결정은 고윳값(Eigenvalue)이 1 이상인 값과 요인부하량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그 결과, 고윳값이 1 이상인 요인은 4개(1요인 8.368, 2요인 2.474, 3요인 1.309, 4요인 1.085)로 추출됐고, 전체 변량의 66.17%를 설명하고 있었다. 또한 회귀계수에 따른 패턴행렬을 통해 요인별로 각 문항이 어떻게 묶이는지 살펴본 결과, 각 상황이 요인1~3은 패턴을 이루고 있었으나 요인4의 11과 15문항은 요인3에 높게 부하 되었다. 하지만 본 연구는 각 문항이 방어적 언어로 설명되는지에 관심 있으므로 요인을 1로 고정 후 결과를 도출한 결과, 고윳값은 8.368로 41.838%의 변량을 설명하며, 요인부하량은 .534~.775로 양호하게 나타났다(표 3).

추가로 다른 척도와 상관을 검토해 최종 문항을 선별하고자 간이정신진단검사(K-SCL95)의 대인민감성과 낮은 자기조절력, 그리고 단축형행복척도의 긍정 및 부정 정서와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상황1과 4는 다른 척도들과 전반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으나 상황2와 3은 다른 척도들과 낮은 상관을 보였다(표 4). 그러나 수치를 토대로 개별 문항을 삭제하기보다는 유의미하지 않은 상관과 요인 부하량이 낮은 문항이 몰려있는 상황2와 3을 삭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다른 측면에서 상황2는 도덕성이나 우호성, 상황3은 성취감이나 자기효능감과 유사하여 이러한 요인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자기개념의

표 2. 예비 방어적 언어 척도(DVS)의 문항분석 및 내적합치도(20문항)

문항	M	SD	왜도	첨도	문항 전체상관	문항 제거시 α
상황1. 분노나 고통스러운 경험이 떠오를 때 나는						
1. '주변에 말한다고 달라지는 건 없어'라고 말한다.	.75	.85	.989	.309	.501	.923
2. '말해봐야 내 입만 아프지'라고 말한다.	.86	.87	.713	-.346	.675	.920
3. '참자 참아'라고 말한다.	1.20	.89	.317	-.647	.494	.924
4. '차라리 없었던 일이라 생각하자'라고 말한다.	.92	.90	.718	-.308	.582	.922
5. '날 이해해주기야 하겠어'라고 말한다.	.59	.84	1.273	.678	.588	.921
상황2. 신념이나 양심에 벗어나는 일을 해야 할 때 나는						
6. '뭐 문제 있겠어?'라고 말한다.	.76	.77	.938	.768	.560	.922
7. '내 선택이 옳아'라고 말한다.	.80	.88	.818	-.267	.498	.923
8. '남들도 다 그러는데 뭐 어때'라고 말한다.	1.05	.85	.375	-.608	.540	.923
9. '내가 이리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야'라고 말한다.	.71	.78	1.057	.936	.662	.920
10. '어쩔 수 없지'라고 말한다.	1.03	.79	.407	-.300	.572	.922
상황3. 기대했던 결과를 얻지 못했을 때 나는						
11. '애초에 기대하지도 않았어'라고 말한다.	.88	.93	.823	-.234	.732	.918
12. '운이 나빴던 거야'라고 말한다.	1.10	.81	.342	-.387	.559	.922
13. '인정할 수 없어'라고 말한다.	.58	.76	1.286	1.219	.546	.922
14. '내 잘못 아니야'라고 말한다.	.64	.81	1.072	.298	.613	.921
15. '괜히 더 생각하지 말자'라고 말한다.	1.14	.82	.046	-.898	.484	.924
상황4. 반복된 실수나 잘못에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을 때 나는						
16. '날 왜 이해해주지 않는 거지?'라고 말한다.	.65	.79	1.064	.515	.676	.920
17. '그래서 나보고 어찌라고'라고 말한다.	.85	.83	.590	-.553	.629	.921
18. '내 잘못이라고만 할 순 없어'라고 말한다.	.64	.78	.852	-.432	.652	.920
19. '생각해봐야 머리만 아프지'라고 말한다.	.70	.80	.939	.176	.674	.920
20. '나도 뭐 어쩔 수 없었어'라고 말한다.	.79	.81	.617	-.592	.655	.920
전체 신뢰도(Cronbach's α) = .925						

표 3. 예비 DVS의 주성분 분석 결과

문항	Pattern Matrix				문항	요인1 고정
	1	2	3	4		공통성
1	.874	-.012	-.046	.219	11	.775
2	.817	.025	-.080	-.055	16	.726
3	.780	.081	.122	-.009	19	.721
4	.695	.093	-.008	-.081	2	.711
5	.693	-.129	-.081	-.274	20	.707
7	-.021	.850	-.014	.079	18	.706
6	.035	.820	.049	-.067	9	.705
8	-.059	.752	-.177	.072	17	.685
9	.094	.749	-.007	-.175	14	.661
10	.075	.675	-.106	-.003	5	.634
17	-.052	.142	-.842	.097	4	.627
20	-.039	.212	-.761	.046	10	.621
18	-.042	.065	-.739	-.177	12	.612
19	.416	.048	-.572	.138	6	.607
16	.329	-.019	-.532	-.129	13	.596
11	.397	.083	-.442	-.128	8	.593
15	.144	-.058	-.408	-.256	7	.557
13	.114	.179	.065	-.786	1	.547
12	-.022	-.026	-.373	-.625	3	.536
14	.025	.528	.049	-.551	15	.534
고웃값	8.368	2.474	1.309	1.085	고웃값	8.368
설명(%)	41.838	12.368	6.544	5.424	설명(%)	41.838
누적(%)	41.838	54.206	60.750	66.174	누적(%)	41.838

표 4. 예비 DVS와 다른 변인들과의 상관

문항	대인민감성	낮은 조절력	긍정 정서	부정 정서
DVS	.478***	.436**	-.199*	.320**
상황1	.618***	.402***	-.385***	.348***
상황2	.150	.163	.058	.118
상황3	.316**	.357***	-.079	.224*
상황4	.454***	.497***	-.223*	.346***

* $p < .05$, ** $p < .01$, *** $p < .001$

위협과 스트레스 상황이 보편적이면서 생리학적 증거와 관련돼야 한다고 봤기 때문에 Dickerson와 Kemeny(2004)가 제안한 요인인 통제 불가능성과 사회적 평가 위협으로 구성된 위상 및 트라우마와 사회적 평가가 최종적으로 채택되었다.

DVS의 신뢰도 및 내적구조에 기초한 타당도 근거

본조사에서 확정된 문항으로 문항 및 신뢰도를 분석한 결과, 평균(.71~1.28), 표준편차(.801~.942), 왜도(.220~.849), 첨도(-.952~-2.63)으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었고, 문항-전체 상관은 .495~.691로 .30 이하인 문항은 없었다. 전체 신뢰도는 .866으로, 문항 제거 시 신뢰도가 상승하는 문항은 없었다(표 5).

그다음 예비조사와 동일한 결과를 도출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요인분석을 시행하였다. KMO와 Bartlett 구형성 검정 결과, KMO는

.869이고, Bartlett 값은 $\chi^2=1266.177(P<.001)$ 으로 나타나 요인분석에 적합하였다. 분석 결과, 고윳값이 1 이상인 요인은 2개(1요인 4.590, 2요인 1.588)로 추출되었고, 전체 변량의 61.77%를 설명하고 있었다. 패턴행렬에서는 2요인이 상황1(1~5번, .676~.823), 상황2(6~10번, .712~.876)에 해당하는 문항끼리 요인을 이루고 있었다. 이번엔 단일요인으로 요인 수를 고정한 결과, 고윳값은 4.590으로 45.898%의 변량을 설명하고 있으며, 요인부하량은 .580~.772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앞서 설명했듯 문항이 상황에 의해 설명되기보다 방어적 언어에 의해 설명되므로 구조상 2요인이 아닌 단일차원 구조로 결정하였다(표 5).

마지막으로 1차 본조사 연구참여자 중 5주 간격을 두고 2차 본조사에 응답한 자료(n=123)를 통해 검사-재검사 신뢰도를 분석한 결과, .604($p<.001$)로 시간에 따른 안정성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DVS의 문항분석,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N=294)

문항	M	SD	왜도	첨도	문항-전체상관	문항 제거 α	Pattern Matrix		요인1 고정		
							1	2	문항	공통성	
상황 1	1	.83	.877	.766	-.296	.581	.853	-.026	.823	5	.772
	2	.84	.875	.724	-.388	.666	.846	.076	.812	2	.749
	3	1.28	.910	.220	-.758	.495	.861	-.082	.771	9	.722
	4	.99	.942	.447	-.952	.517	.859	-.020	.737	6	.683
	5	.71	.855	.849	-.396	.691	.844	.236	.676	7	.679
상황 4	16	.71	.801	.802	-.263	.583	.853	.728	.072	8	.678
	17	.84	.875	.570	-.862	.572	.854	.725	.071	1	.671
	18	.79	.816	.710	-.308	.573	.854	.876	-.084	10	.610
	19	.72	.804	.793	-.300	.628	.850	.712	.135	4	.604
	20	.87	.813	.516	-.600	.508	.859	.805	-.092	3	.580

다른 변수와의 관계에 따른 DVS의 타당도 근거

DVS의 수렴타당도를 확인하고자 예비조사와 동일한 척도를 1, 2차 조사에서 사용하였다. DVS는 대인민감성(.496/.388), 낮은 자기조절력(.409/.422), 부정정서(.320/.362)와의 관계에서 유의미한 정적상관을 보였고, 긍정정서(-.373/-.221)와는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이는 방어적 언어가 높은 개인일수록 조절 문제나 대인관계에서 취약성을 형성하며, 부정적 정서를 더 많이 경험한다는 걸 알 수 있다.

2차 본조사에서는 이화방어기제의 합리화와 한국판 5요인 마음챙김 단축형 척도(K-FFMQ)를 추가해 수렴 및 변별타당도를 확인하였다. K-FFMQ와는 부적상관(-.346)을 보였는데, 이는 방어적 언어가 알아차림을 방해하고 왜곡을 일으킨다는 조작적 정의와 부합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또 합리화는 DVS와 개념상 유사성이 높아 두 변인의 측정치 간 상관계수에 유의해야 하는데 분석 결과, 둘의 관계는 유의했으나 상관계수 .252로 다소 낮게 나타나 DVS와 합리화가 서로 구분되는 개념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DVS는 합리화보다 관련 변인과 모두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는데 이는 DVS가 관련 변인들과의 관계나 예측력 면에서 더 타당한 도구라고 볼 수 있다(표 6).

논 의

본 연구는 위협적 정보로부터 자기개념의 유지와 보호를 위해 알아차림을 방해거나 왜곡을 일으키는 자기-기만적 말하기인 방어적 언어 척도(DVS)를 개발하고, 그에 따른 심리측정적 속성을 평가하였다. DVS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분석한 결과, 단일요인구조로 도출되었고, 안정적인 신뢰도와 함께 두 차례에 걸쳐 타당도를 확보함으로써 DVS가 신뢰롭고 타당한 도구임을 밝혔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마음챙김과 DVS가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는데, 이는 방어적 언어의 조작적 정의를 입증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즉, 방어적 언어가 알아차림을 방해하고 왜곡하는 자기-기만적 말하기란 점에서 과도한 방어적 언어의 사용은 마음챙김의 알아차림, 비판단, 수용을 저해하는 요인이라 할 수 있다. 둘째, DVS는 대인 민감성과 낮은 자기조절력 모두 유의한 정적상관이 보였는데, 이는 낮은 자기조절력과 방어적 처리의 관계를 탐구한 Ruttan과 Nordgren(2016)의 연구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즉 자기조절 이슈에서 방어적 언어의 사용은 자기 개선의 노력을 덜하게 만들어 문제가 유지되거나 재발하는 결과를 만든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대인민감성과의 상관은 방어적 언어 사용이 높을수록

표 6. DVS와 다른 척도들과의 상관분석 결과

문항	대인민감성	낮은 조절력	긍정 정서	부정 정서	합리화	마음챙김
DVS(1차)	.496***	.409***	-.373***	.320***	-	-
DVS(2차)	.388***	.422***	-.221*	.362***	.252**	-.346***
합리화	.003	-.051	.121	-.011	-	-.035

* $p < .05$, ** $p < .01$, *** $p < .001$

타인의 행동을 오해석하거나 왜곡하는 등 관계에 더 민감하거나 적대적일 수 있다는 Watson(2002)의 연구를 간접적으로 지지한다.

셋째, DVS와 이화방어기제의 합리화와의 약한 상관은 유사한 두 개념이 독립적이고, 방어의 과정을 포착하려는 관점에서 서로 다른 지점을 바라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자기개념에 위협적인 정보가 들어오면 방어기제가 작동되어 이를 무시 또는 회피하거나 자기개념에 일치되는 형태로 변형시킨다는 점에서 두 개념의 기능적 측면이 상당히 유사하다. 그러나 방어기제의 과정과 결과를 섞어 신념이나 사고 경향성을 자기보고식으로 측정하는 방식은 해석에 유의해야 하며, 실제 개인의 보고대로 사고나 행동하는지 면에서 타당성이 떨어진다. 또 무의식에서 작동한 기제를 개인이 인지한다는 것부터 이미 방어로서의 자격을 잃은 거나 다름없고(Cramer, 1998), 측정한다고 해도 이미 인식이나 왜곡이 발생한 후의 보고일 가능성이 크다. 반면, DVS는 방어기제의 징후로써 관찰 가능한 행동을 포착한다는 점(Wallerstein, 1983)에서 타당성을 지니며, 합리화와 달리 알아차림을 방해하고 왜곡을 일으킨다는 기능을 지니므로 구분된 개념이라 하겠다. 특히 관찰 가능한 방어 행동인 자기-기만적 말하기를 포착하고 측정한다는 점은 Barrett 등(2002)의 DVBA가 방어의 과정으로 발생한 외현적 징후를 이해하려는 관점과 같다. 다만, DVS가 방어의 작용 ‘과정’과 작용으로 인한 ‘결과’를 구분해 평가 및 측정 오류의 발생을 방지했다는 점에서 더 신뢰롭고 타당한 도구라 할 수 있다.

본 연구가 지닌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DVS가 방어의 작용과정과 결과를 구분하고, 구체적으로 포착하려는 방어 현상을 조작적으

로 정의해 신뢰롭고 타당한 도구를 개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Mihalits와 Codenotti (2020)의 주장처럼 앞으로 방어기제의 경험적 연구는 가설검증이나 일반법칙을 찾기보다 특정 방어기제 모델이 특정 현상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판단할 수 있는 데이터를 얻어야 한다. 따라서 연구자는 자신이 포착하려는 방어적 현상이 방어기제의 과정 중 어느 지점에서 포착되고 설명될 수 있는지 구분하는 게 중요하다. 본 연구는 DVS가 위협적 정보로 인해 방어기제의 징후로써 방어적 언어를 포착하는 지점을 구분하고, 알아차림을 방해하고 왜곡하는 결과적 현상을 예측 및 설명하는 경험적 데이터를 얻는단 점에서 의의가 있겠다.

둘째, DVS는 상담 및 심리치료 장면에서 활용성이 크다. 자기개념을 보호하려는 방어기제나 인지적 전략의 사용은 현실을 왜곡할지라도 문제가 되지 않으면 그 순간에 적응적이고 통합된 자기개념을 만들 수 있다. 하지만 끊임없이 변화하는 주변 환경에 생각과 행동을 바꾸는 것도 적응적이기 때문에, 만성적으로 자기개념을 고수하려는 노력은 오히려 외부 환경에 부적응하거나 취약성을 구성한다(Barrett et al., 2002). 이를 통해 방어적 언어의 사용을 자각하게 하고, 심리적 유연성을 목표로 하여 진정성과 마음챙김 증진(Lakey et al., 2008) 또는 조절 문제에서 자기 개선의 노력(Ruttan & Nordgren, 2016)과 연합하여 사용하면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다.

셋째, DVS는 정신역동과 사회심리학의 관점에서 의의를 담고 있다. 정신역동 이후 방어기제는 현실에 적응하도록 하는 정상적 반응으로 받아들여졌다(Hartmann, 1958). 하지만 방어기제의 유형화 방식은 자아의 복합적인 작동 방식을 특정 방어기제로 지나치게 단순화

시켜 설명하는 위험이 있었다(Brenner, 1981). Barrett 등(2002)은 특정 방어기제의 사용 여부를 평가하기보다 그러한 전략을 통해 나타나는 사람들의 반응을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봤는데, DVS 또한 방어의 외현적인 징후를 포착하므로 그 맥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더불어 성격 및 사회심리학적 측면에서 DVBA가 개인 특성과 상황적 맥락의 상호작용(특성×상황)을 통해 영향을 받는다고 했듯 DVS 또한 이를 반영하여 상황에 따른 개인의 방어적 언어 수준을 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본 연구의 한계 및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DVS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견고히 할 필요가 있다. 이론적 배경으로 인해 주성분 분석으로 요인구조를 분석했으나 추후 확인적 요인분석으로 본 연구와 같은 결과를 보이는지 추가로 검증될 필요가 있다. 또 DVBA를 활용해 마음챙김이나 자아존중감과의 관계나 영향력을 살펴본 연구처럼(Kernis et al, 2008; Lakey et al, 2008), 다른 변인과의 관계도 검증하여 신경증이나 중독 등 정신건강 문제의 이해와 치료를 위한 연구도 축적돼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자기개념에 위협적인 상황에 대한 대표성 및 일반화 문제이다. 스트레스나 자기개념에 위협적 상황은 저마다 다양하나, 보편적이면서 생리학적 증거와 밀접하게 관련될 필요성을 고려하였다. 이에 많은 연구를 통해 검증된 사회 스트레스 검사(Trier Social Stress Test; TSST)의 요소인 통제 불가능성, 사회적 평가위협이 HPA 축에 가장 큰 반응을 일으킨다는 연구(Dickerson & Kemeny, 2004)에 의해 두 상황이 선정됐는데, 후속 연구에서는 DVS와 스트레스 및 생리학적 변화와의 관계를 검증해볼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Baer, R. A., Smith, G. T., & Allen, K. B. (2004). Assessment of mindfulness by self-report: The Kentucky Inventory of Mindfulness Skills. *Assessment, 11*(3), 191-206. <https://doi.org/10.1177/1073191104268029>
- Barrett, L. F., Cleveland, J., Conner, T., & Williams, N. L. (2000). *Manual for the Defensive Verbal Behavior Rating Scale, Version 3.0*. Unpublished manuscript, Boston College, Boston, MA.
- Barrett, L. F., Williams, N. L., & Fong, G. T. (2002). Defensive verbal behavior assessment.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8*(6), 776-788. <https://doi.org/10.1177/0146167202289007>
- Bentall, R. P., Kaney, S., & Bowen-Jones, K. (1995). Persecutory delusions and recall of threat-related, depression-related, and neutral words.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19*(4), 445-457. <https://doi.org/10.1007/BF02230411>
- Bentall, R. P., Kinderman, P., & Kaney, S. (1994). The self, attributional processes and abnormal beliefs: Towards a model of persecutory delusions.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32*(3), 331-341. [https://doi.org/10.1016/0005-7967\(94\)90131-7](https://doi.org/10.1016/0005-7967(94)90131-7)
- Bowins, B. (2004). Psychological defense mechanisms: A new perspective. *The American Journal of Psychoanalysis, 64*(1), 1-26. <https://doi.org/10.1023/B:TJJP.0000017989.72521.26>
- Brenner, C. (1981). Defense and defense mechanisms. *The Psychoanalytic Quarterly, 50*(4),

- 557-569.
<https://doi.org/10.1080/21674086.1981.11926971>
- Cheong, M. J., Chae, E. Y., Lyu, Y. S., & Kang, H. W. (2017). The Validation of Korean Version of Five Facet Mindfulness Questionnaire Short Form. *J of Oriental Neuropsychiatry*, 28(3), 207-216.
<https://doi.org/10.7231/jon.2017.28.3.207>
- Cho, S. H. (1999). A Validational Study of Korean Version of Defense Style Questionnaire.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11(2), 115-137.
https://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6369258&language=ko_KR&hasTopBanner=false
- Cramer, P. (1998). Coping and defense mechanisms: What's the difference?. *Journal of personality*, 66(6), 919-946.
<https://doi.org/10.1111/1467-6494.00037>
- Derogatis L. R. (1977). *SCL-90-R: Administration, scoring and procedures manual-I for the revised version*. Baltimore, MD: Johns Hopkins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Eigendruck.
- Di Giuseppe, M., Ciacchini, R., Micheloni, T., Bertolucci, I., Marchi, L., & Conversano, C. (2018). Defense mechanisms in cancer patients: a systematic review. *Journal of psychosomatic research*, 115, 76-86.
<https://doi.org/10.1016/j.jpsychores.2018.10.016>
- Dickerson, S. S., & Kemeny, M. E. (2004). Acute stressors and cortisol responses: a theoretical integration and synthesis of laboratory research. *Psychological bulletin*, 130(3), 355.
<https://doi.org/10.1037/0033-2909.130.3.355>
- Epstein, S. (1973). The self-concept revisited: Or a theory of a theory. *American Psychologist*, 28(5), 404-416. <https://doi.org/10.1037/h0034679>
- Haan, N. (1977). *Coping and Defending: Processes of Self-Environment Organization*. New York: Academic Press.
- Hart, D., & Chmiel, S. (1992). Influence of defense mechanisms on moral judgment development: A longitudinal study. *Developmental Psychology*, 28(4), 722-730.
<https://doi.org/10.1037/0012-1649.28.4.722>
- Hartmann, H. (1958). *Ego psychology and the problem of adaptation*. (D. Rapaport, Trans.).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Inc.
- Higgins, E. T. (1987). Self-discrepancy: a theory relating self and affect. *Psychological review*. 94(3), 319-340.
<https://doi.org/10.1037/0033-295X.94.3.319>
- Hong, S. M., & Ha, J. H. (2020). Classification and Evaluation of Defense Mechanisms. *Psychoanalysis*, 31(1), 1-10.
<https://doi.org/10.18529/psychoanal.2020.31.1.1>
- Jahng, S. M. (2015). Best Practices in Exploratory Factor Analysis for the Development of the Likert-type scale. *The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34(4), 1079-1100.
<https://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6562487>
- Kang, H. C. (2013). A Guide on the Use of Factor Analysis in the Assessment of Construct Validity.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43(5), 587-594.
<http://dx.doi.org/10.4040/jkan.2013.43.5.587>
- Kernberg, O. (1967). Borderline personality organization. *Journal of the American psychoanalytic Association*, 15(3), 641-685.
<https://doi.org/10.1177/000306516701500309>

- Kernis, M. H., Lakey, C. E., & Heppner, W. L. (2008). Secure versus fragile high self-esteem as a predictor of verbal defensiveness: Converging findings across three different markers. *Journal of personality*, 76(3), 477-512. <https://doi.org/10.1111/j.1467-6494.2008.00493.x>
- Kihlstrom, J.F., & Cantor, N. (1984). Mental representations of the self. In L. Berkowitz (Ed.),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Vol. 17, pp. 1-47). New York: Academic Press. [https://doi.org/10.1016/S0065-2601\(08\)60117-3](https://doi.org/10.1016/S0065-2601(08)60117-3)
- Kim, J. W. (2003). The Study of the Maturity of Defense Mechanisms.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15(4), 747-763. <https://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6369433>
- Kim, K. I., Kim, J. H., & Won, H. T. (1984). *Korean manual of symptom checklist-90-revision*. Seoul: Jung Ang Juk Sung Publisher, 8-10.
- Kwon, S. J. (2015). *Implementation guidelines of Korean-Symptom Check List95(KSCL95)*. Jung Ang Juk Sung Publisher. 5-26.
- Lakey, C. E., Kernis, M. H., Heppner, W. L., & Lance, C. E. (2008). Individual differences in authenticity and mindfulness as predictors of verbal defensiveness.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42(1), 230-238. <https://doi.org/10.1016/j.jrp.2007.05.002>
- Lee, M. W., Kim, Z. S., & Shin, M. S. (2003). Attentional bias and attributional style of people with paranoid tendency threatened to self-concept.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2(1), 71-91. <https://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6371043>
- Markus, H. (1977). Self-schemata and processing information about the self.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5(2), 63-78. <https://doi.org/10.1037/0022-3514.35.2.63>
- Mihalits, D. S., & Codenotti, M. (2020). The conceptual tragedy in studying defense mechanisms. *Integrative Psychological and Behavioral Science*, 1-16. <https://doi.org/10.1007/s12124-020-09515-6>
- Rhee, K. H., Kim, J. U., Kim, J. K., & Park, Y. S. (1991). A standardization study of EWHA defense mechanism test. *Journal of Korean Neuropsychiatric Association*, 30(3), 582-592. <http://www.riss.kr.libproxy.kbtus.ac.kr/link?id=A1995990>
- Rogers, C. R. (1951). *Client-centered therapy, its current practice implications, and theory*. Boston: Houghton Mifflin Company.
- Rogers, C. R. (1957). The necessary and sufficient conditions of therapeutic personality change. *Journal of Consulting Psychology*, 21(2), 95-103. <https://doi.org/10.1037/h0045357>
- Ruttan, R. L., & Nordgren, L. F. (2016). The strength to face the facts: Self-regulation defends against defensive information processing.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137, 86-98. <https://doi.org/10.1016/j.obhdp.2016.06.006>
- Seo, W. J., Lee, S. M., Kim, M. H., & Kim, J. J. (2018). Exploratory Factor Analysis in Psychological Research: Current Status and Suggestions for Methodological Improvements. *Journal of Institute for Social Sciences*, 29(1), 177-193.

- <http://dx.doi.org/10.16881/jss.2018.01.29.1.177>
- Shapiro, D. (1989). *Psychotherapy of neurotic character*. Basic Books.
- Sjoback, H. (1973). *The psychoanalytic theory of defensive processes*. John Wiley & Sons.
- Suh, E. K., & Koo, J. S. (2011). A concise measure of subjective well-being (COMOSWB): Scale development and validation. *Korea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25(1), 95-113.
<https://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6373390>
- Vaillant, G. E. (1971). Theoretical hierarchy of adaptive ego mechanisms: A 30-year follow-up of 30 men selected for psychological health.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24(2), 107-118.
<https://doi.org/10.1001/archpsyc.1971.01750080011003>
- Vaillant, G. E. (1977). *Adaptation to Life*. Boston, MA: Little, Brown.
- Wallerstein, R. S. (1983). Defenses, defense mechanisms, and the structure of the mind. *Journal of the American Psychoanalytic Association*, 31, 201-225.
<https://pep-web.org/search/document/APA.031S.0201A>
- Watson, D. C. (2002). Predicting psychiatric symptomatology with the Defense Style Questionnaire-40. *International Journal of Stress Management*, 9(4), 275-287.
<https://doi.org/10.1023/A:1019930332257>
- Won, D., & Kim, K. H. (2006). Validation of the Korean version of Five-factor Mindfulness Questionnaire. *Korean J Health Psychol*, 11, 871-886.
<https://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6368687>
- Yen, Y. (2013). *Authenticity and Physiological Changes during Defensive Verbal Response*.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Kansas.
- Yoon, S. A., Ahn, G. Y. R., & Park, Y. S., (2008). The Defense Mechanism and Coping Strategy Characteristics of Resiliently Adaptive Female College student.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13(3), 961-975.
<https://doi.org/10.17315/kjhp.2008.13.4.008>
- 1차원고접수 : 2021. 05. 31.
2차원고접수 : 2021. 08. 25.
3차원고접수 : 2021. 12. 15.
최종게재결정 : 2022. 01. 12.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Defensive Verbal Scale

Jae Seok Kwak

Sun Jung Kwon

Yena Kim

Korea Baptist Theological University

This study developed the Defensive Verbal Scale (DVS) to measure one's self-deceptive speech that protects self-concept from threatening information and examined its psychometric properties. First, operational definition of Defensive Verbal was defined. Following the literature review, 4 situations where one's self-concept might be threatened were derived: (1) situation where anger or painful experience arise, (2) situation where working outside one's belief or conscience is required, (3) situation where results are different from one's expectation, (4) situation where repeated mistakes or faults are negatively evaluated and items were constructed for each situation. On a preliminary survey, responses of 106 people aged 14-24 (male 53 and female 53) were reviewed to examine psychometric properties. As a result, a single-dimensional structure was explored and a high internal consistency (Cronbach's α) was found. Situations and items that are not significant were eliminated based on convergent and discriminative validity analysis. As a result, a situation in which the threat of self-concept is common and anger or painful experiences related to physiological changes caused by stress arise, and a situation where repeated mistakes or faults are negatively evaluated, and 5 items for respective situations were selected. To evaluate psychometric properties of the confirmed DVS, two main surveys were done and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item analysis, internal consistency, test-retest reliability, convergent and discriminative validity were analyzed on each survey. The result showed a single-dimensional structure and stable reliability. Whereas interpersonal sensitivity, low self-regulation, negative emotions and rationalization showed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positive emotions and mindfulness showed significant negative correlation. This result verified convergent and discriminative validity. Finally, the significance and implications of the research and suggestions for future studies were discussed.

Key words : defensive verbal, defense mechanism, self-concept, self-deception